

남산의 최상위 포식자 새매

남산에도 새매가 살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인 새매는 대부분 봄과 가을에 잠깐 우리나라를 경유하거나 겨울만 보냈습니다. 즉 번식은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2015년 처음 포천에서 번식을 확인했으며 이어 2016년 남산에서도 새끼를 키우는 새매를 발견했습니다.

남산에서 번식한 새매의 의미



암컷과 수컷이 함께~(2020년 12월)



어린 새매의 모습(2021년 12월)

새매는 자연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남산에서 새매가 번식함은 남산의 먹이사슬이 안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새끼들의 먹이인 소형 조류(박새류, 참새 등)가 풍부한 편이고, 소형 조류의 주된 먹이인 곤충도 충분해 새끼를 키우기에 적합한 자연생태계로 볼 수 있습니다.

사계절 남산에서 만날 수 있는 새매



참새를 사냥한 새매(2022년 8월)



사냥한 참새를 먹고 있는 새매(2022년 8월)

2016년부터 남산에서 사계절 새매를 만날 수 있고, 2022년 현재 사람이 있어도 신경 쓰지 않고 사냥하는 새매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아마도 남산에서 번식하여 계속 살아온 새매일 겁니다.

[남산 자연성 지표 새매] 새매의 지속 번식은 남산의 자연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남산의 자연환경이 파괴되면 새매도 떠날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남산에 터를 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남산 새매 동영상 <https://youtu.be/qG7TAExTBvE> [글 / 사진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과과]